교원 평가 오늘부터 전면시행

"수업 질 향상" "객관성 결여" 양론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

이달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상대로 한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가 전면 시행되는 것을 놓고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와 일부 교원은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일부에선 평가방식과 내용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교의 교원 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 관련 교육규칙을 모두 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수업 및 지도방식 등을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평가하는 것이다.

일단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둔 학부모 박민순(여·39·광주 북구)씨는 "교사가 평가를 받는다면 아무래도 좀 더 열성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겠느냐"면서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직사회에 반영된다는 점도 반길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도 "그동안 극히 소수지만 일부 무능력한 교사 때문에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사교육에 밀리는 현상이 되풀이 됐다"면서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묵묵히 학생 교육에 매진해온 교사들이 인정받게 되고, 이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원평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열의', '과제의 양' 등을 묻는 평가내용이 주관적인데다, 교사의 개인별 특성이 접목된 수업 내용을 단순 계량화하는 게 객관적 평가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 등도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한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학부모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는 방식도 교직사회의 온정주의와 학교간 과열경쟁에 따른 '점수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교과부가 2008년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학생·학부모 조사에서는 '만족' 이상 비율이 각각 63.1%, 59.5%로 나타났으나, 동료 교사간 평가에서는 '우수' 이상이 92.6%로 조사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교원평가 어떻게 하나

수업·학생지도 18개 지표 설문

학생·동료·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교교육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이 제공되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연수 등을 이수토록 해 교원의 능력을 높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어떻게 시행되나=모든 학교는 오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어 6~9월 시행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교장·교감은 제외)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교사를 상대로 한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교장·교감 평가는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해 8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 척도로 이뤄지며, 서술형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는 10월부터 평가 및 분석 작업을 벌여 내년 초까지 개인별 성적을 통보하게 되며, 성적을 받은 모든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동료교사 평가=동료교원 평가는 평가 대상자 1명에 대해 교장, 교감 1명 이상과 동료 교사 3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평가 내용은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학습지도(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활용), 생활지도(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학생지원)와 관련한 18개 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된다.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중점 평가한다.

◇학생·학부모 평가=학생평가의 주체는 해당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초4~고3)으로, 질문지는 '수업을 위해 교재를 많이 준비한다', '가르칠 내용에 대해 실력이 뛰어나다' 등으로 구성된다. 초 1~3학년은 균형잡힌 답변이 어렵다고 봐 평가주체에서 뺐다.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고르게 부여한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 활용=평가결과는 10월~내년 2월 환산점(5점 만점) 형태로 교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는 반면 결과가 좋은 교원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때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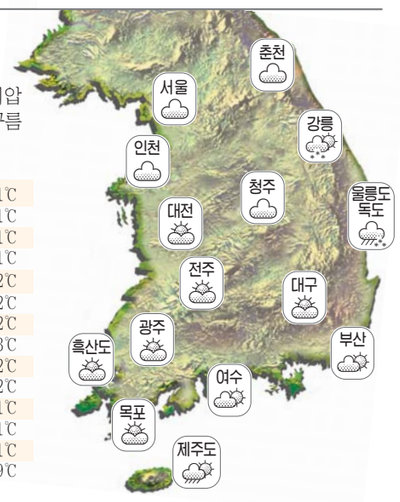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01분 해짐 20시 30분 달뜸 20시 30분 달짐 07시 30분

'두근 두근' 새출발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구름많음	7/11℃
목 포	구름많음	5/11℃
여 수	흐린뒤 맑음	6/11℃
완 도	흐린뒤 맑음	5/11℃
구 례	흐림	6/12℃
해 남	흐림	5/12℃
장 흥	흐림	5/12℃
고 흥	흐림	5/13℃
순 천	흐림	6/12℃
영 광	구름많음	4/12℃
진 도	흐린뒤맑음	5/11℃
전 주	구름많음	3/11℃
남 원	구름많음	3/11℃
흑산도	구름많음	5/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2.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3:08 15:28	08:22 20:43
여수	10:15 22:36	03:57 16:1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날 씨						
최저/최고	2/13	5/9	7/14	8/10	5/9	2/7

"광주학생독립운동, 국내·외 독립운동 기폭제"

조선총독부 사찰 보고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은 물론 해외 독립운동 통합 단체인 한국국민당이 조직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단(이하 연구단)은 1일 "1930년 8월 12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에게 보낸 '안창호 일가의 한국국민당 조직과 그 후 행동에 관해'라는 사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해외 한인독립운동단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1929년 11월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30년 3월까지 만주지역 급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단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연구단이 입수해 분석한 사찰보고서는 "1929년 11월 광주사건은 재외 한인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자에 대해 가장 이상한 자극을 주어 그들은 이에 민족의식을 회복하여 쇠락하는 상황에서 전환해 일제히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며 적고 있다. 이어 보고서에는 "그 중 상해 임시정부 수령 이동녕 일파와 흥사단장 안창호 일파는 기회가 도래했다고 간주하고 상해, 천진, 북평 간을 왕복하며 재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를 규합하여 한국민족의 대동단결과 통일운동에 힘쓰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연구단장인 김재기 전남대 교수는 "중국, 일본, 북한 지역 미발굴 자료 수집과 함께 국가기록원이나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 관련 사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독립운동과 관련성을 규명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조선대 입학사정관 부정 혐의 못 찾아

경찰, 전국 76개 大 조사

부정 입학사정관 전형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은 수도권 대학 36곳 등 전국 76개대 조사 대상 중 60여곳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조선대와 전남대에도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기관의 추천서나 수상 실적 등의 전형 자료를 제출한 학생의 지원·입학 여부를 조사했으나 일단 양 대학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의 추천서와 수상 실적 등의 전형 자료를 대학들로부터 건네받아 지원 및 당락 판정 과정에서의 부정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류를 조작해준 정황이 포착된 학원강사 브로커 이모 씨를 이번 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학사정관 전형 응시 서류를 조작해줬다는 소문과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연합뉴스